

보육교사의 구강건강, 구강건강영향지수 및 전신건강지수의 관련성

성미경¹, 손은주², 장경애^{3*}

¹마산대학교 치위생과, ²동의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직교육과, ³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Oral Health Impact Profile and Total Health of Childcare Teacher

Mi-gyung Seong¹, Eun-Joo Son² and Kyeong-Ae Jang³

¹Dep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²Bureau of General Education and Teaching, Dong-Eui University

³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11년 7월 23일부터 2011년 7월 26일까지 부산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205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구강건강영향지수와 전신건강지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구강보건지식은 구강보건실천에 대하여 $\gamma = .155$, $t = 2.539$ 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행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강보건실천정도는 구강건강영향지수에 $\beta = -.001$, $t = -.008$ 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식생활행태는 구강건강영향지수에 $\beta = .172$, $t = 2.560$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전신건강지수에 $\beta = .582$, $t = 10.275$ 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 보육교사들의 구강건강, 구강건강영향지수와 전신건강지수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써 구강병을 예방하고, 보육교사들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과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구강건강영향지수를 향상 시킬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life of oral health according to the knowledge and behavior related with oral health and childcare teachers. Total 205 childcare teacher who working in Busan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knowledge on oral health has an effects on oral health practice with $\gamma = .155$ and $t = 2.539$ but this doesn't show meaningful effects on dietary pattern. Oral health is not affected by oral health practice with $\beta = -.001$, $t = -.008$ but dietary pattern has an effects on oral health impact profile with $\beta = .172$, $t = 2.560$. Oral health impact profile show meaningful effects on total health index with $\beta = .582$, $t = 10.275$.

The results show that the oral health program for childcare teacher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oral disease and oral health impact profile should be improved for not only childcare teachers but also children.

Key Words : Childcare teacher, Oral health impact profile, Total health index

1. 서론

최근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개선으로 국민의 수명이 늘어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삶의 질 척도를 제시하였고, 나아가 구강기능과 구강건강

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구강상태나 영향정도를 반영한 삶의 질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었다[1,2]. OHIP(Oral Health Impact Profile)는 구강질환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나타내는데 널리 사용되고[3], 구강건강을 측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평가, 기능장애나 불이익, 사회·정신·심리학적 영향과 병리학적 과정 그리고 생

*Corresponding Author : Kyeong-Ae Jang (Silla University)

Tel: +82-10-7167-7889 email: jka@silla.ac.kr

Received September 18, 2012 Revised (1st November 6, 2012, 2nd November 19, 2012) Accepted December 6, 2012

리학적 결과 및 신체장애까지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4]. 그러나 구강문제는 구강기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신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5].

중대구강병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으로 유아계층과 학생계층, 청년계층에 많이 나타나고, 장년계층과 노년계층에서 연령과 정비례하며, 치아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대구강병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6].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의 증가, 다양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게 되면서 아동의 보육시설에 위탁하게 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7]. 영유아기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하여 볼 때 매우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발달적 변화를 이룩하는 시기이므로, 다른 시기보다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보호적 노력이나 교육적 시도의 효과는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로 영유아들과 보육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사는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더 요구된다[8]. 따라서 영유아를 집단으로 양육하는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를 돌보기 위한 건강관련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은 어려운 실정으로 교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9]. 즉 유아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인력인 교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이 유아에 대한 구강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10]. 하지만 보육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60%이상이 아동건강 및 질병관리에 대한 지식정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아동의 건강관리를 수행해야 할 업무로 58.4%가 건강관련자료의 구축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원하고 있었다[8].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자신의 지식수준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9]. 고와 백[11]의 연구에서 칫솔질 교육이 포함된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기관의 비율이 26.5%이었고, 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10.7%가 되었다. 구강보건교육은 올바른 치약사용과 잇솔질 실천을 높여 우식경험을 낮추고, 치석의 양을 억제시킨다고 보고하였다 [12]. 따라서 교사의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구강보건지식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영유아들의 구강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의 구강건강증진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구강건강 삶의 질을 높여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과 실천 및 식생활행태를 알고,

구강건강, 구강건강영향지수와 전신건강지수의 관계를 파악하여 보육교사들이 구강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들을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2011년 7월 23일부터 2011년 7월 26일까지 부산광역시 S 대학교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08부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205부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김과 민[13]의 논문에서 사용된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전신건강지수 도구를 적용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위, 근무지역, 근무연수 등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5문항과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8문항, 구강보건실천에 관한 7문항, 식생활 행태에 관한 5문항, 구강건강(OHIP-14)에 관한 14문항, 주관적 건강(THI)에 관한 1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구강보건지식은 0, 1의 2점 척도이며,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점수범위는 0점에서 8점이며, 신뢰도가 낮고, 그 외 척도는 모두 5점 척도로 평균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점수범위는 1~5인. 점수가 높을 수록 지식, 실천이 높고, 식생활이 바람직하며,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이 좋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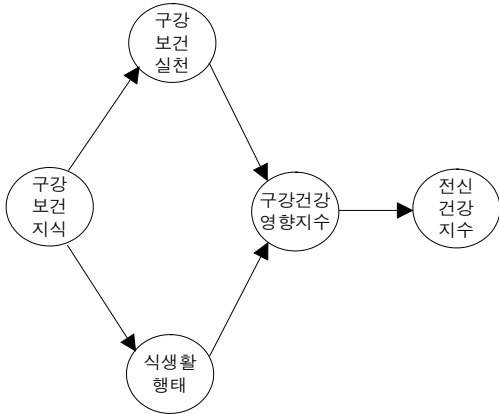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survey tools

문항	문항내용	문항수	점수 범위	신뢰도
구강보건 지식	유아의 유치수, 충치원인, 불소 효과, 틀니 관리법 등	8	0~8	.326
구강보건 실천	예방목적 치과 방문, 치료목적 방문, 구강위생용품 사용	7	1~5	.701
식생활 행태	규칙적 식사, 편식여부, 물의 섭취 횟수, 음식의 종류	5	1~5	.731
구강건강 영향지수	기능적 제한, 신체적 동통, 심리적 불편, 신체적 능력저하, 심리적 능력저하, 사회적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	14	1~5	.857
전신건강 지수	자각증상, 눈, 피부, 소화기능, 호흡기능	14	1~5	.919

2.3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 가설 1. 보육교사의 구강보건지식은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보육교사의 구강보건지식은 식생활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구강보건실천은 구강건강영향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식생활 행태는 구강건강영향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전신건강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자료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에 사용한 기법들은 조사대상인 인구 통계학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 행태, 구강건강영향지수, 주관적 전신건강지수의 검사적도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보육교사들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100%였으며, 연령은 30대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이 50.7%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보육교사가 82.4%로 대부분이었고, 근무연수는 5-8년 미만이 35.6%로 가장 많았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	205	100.0
연령	20대	36	17.6
	30대	93	45.4
	40대	59	28.8
	50대	17	8.3
학력	고졸	15	7.3
	전문대졸	104	50.7
	대졸	73	35.6
직위	대학원졸	13	6.3
	보육교사	169	82.4
	시설장	36	17.6
근무연수	5년 미만	56	27.3
	5~8년 미만	73	35.6
	8~11년 미만	48	23.4
	11년 이상	28	13.7
합계	205	100.0	

3.2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강보건실천이 식생활 행태와 정적 상관($r=.29, p<.01$)을 가지고 있었으며, 식생활 행태는 구강건강과 정적 상관($r=.18, p<.01$)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전신건강지수와 정적 상관($r=.47, p<.01$)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Observed Vari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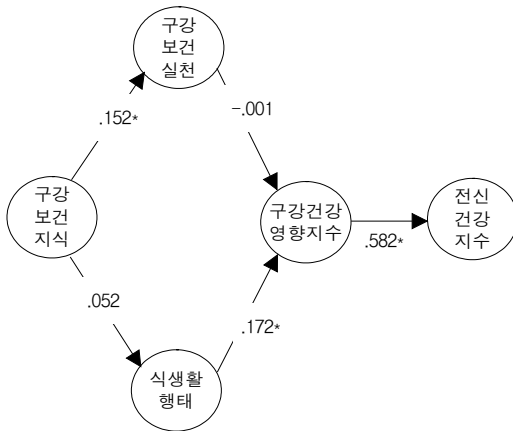
	구강보건 지식	구강보건 실천	식생활 행태	구강건강 영향지수	전신건강 지수
구강 보건 지식	1.00				
구강 보건 실천	.08	1.00			
식생활 행태	.02	.29**	1.00		
구강건강 영향지수	-.03	.07	.18**	1.00	
전신건강 지수	-.06	-.10	.08	.47**	1.00

** $p<.01$

3.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 99.50에 대한 p값이 .000으로 작았으며, RMSEA는 .097로 나타났다. 그러나, GFI와 CFI는 모두 0.9이상으로 권장수용수준에 포함되었으며, NFI는 0.9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를 수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구강보건지식은 구강보건실천에 대하여 $\gamma=.155$, $t=2.539$ 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지식은 식생활 행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강보건실천 정도는 구강건강에 $\beta=-.001$, $t=-.008$ 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식생활행태는 구강건강영향지수에 $\beta=.172$, $t=2.560$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전신건강지수에 $\beta=.582$, $t=10.275$ 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χ^2 (df=34)=99.50, p=.000, RMSEA=.097,
GFI=.964, NFI=.858, CFI=.900

[Fig. 2] Analysis of research model

[Table 4]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t 값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155	.155	2.539
구강보건지식→ 식생활행태	.052	.052	.802
구강보건실천→ 구강건강영향지수	-.000	-.001	-.008
식생활행태→ 구강건강영향지수	.124	.172	2.560
구강건강영향지수→ 전신건강지수	.809	.582	10.275

주) t 값의 절대값이 1.96보다 크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함

[Table 5]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결과 원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SMC (R^2)
구강보건실천 구강보건지식	.155(2.539)	-	.155(2.539)	.024
식생활행태 구강보건지식	.052(.802)	-	.052(.802)	.003
구강건강영향 구강보건실천	-.001(-.008)	-	-.001(-.008)	
식생활행태 구강보건지식	.172(2.560)	-	.172(2.560)	.030
구강보건지식	-	.009(.557)	.009(.557)	
전신건강지수 구강보건실천	-	-.000(-.008)	-.000(-.008)	
식생활행태 구강보건지식	.582(10.275)	-	.582(10.275)	.339
구강건강영향 구강보건지식	-	.005(.558)	.005(.558)	

주) 추정치는 표준화계수이며, ()안의 값은 t 값으로 절대값이 1.96보다 크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함

4. 고안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의 영향을 알아보고, 구강건강, 구강건강영향지수와 전신건강지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변인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구강보건지식에 의한 구강보건실천의 설명력은 약 2.4%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구강보건실천에 대하여 구강보건지식은 $\gamma=.155$, $t=2.539$ 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정 등[14]의 연구에서 유아교육 및 보건을 담당하는 유아교육기관교사는 유아에게 올바른 구강위생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도 자신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하였고, 백과 노[15]의 연구에서 구강건강관리 인식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이 높다고 하였다. 원과 박[16]의 연구에서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실천의 상관관계는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일반치과지식의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구강건강지식 총점수가 높을수록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일반치과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천점수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실천 사이의 상관관계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시 지식, 행동 및 태도가 직접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식생활 행태에 대하여 구강보건지식은 $\gamma=.052$, $t=.802$

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구강건강영향지수에 대하여 구강보건실천은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았으며, 식생활 행태는 $\beta=1.172$, $t=2.560$ 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구강보건지식은 구강보건실천과 식생활 행태를 매개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009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강건강영향지수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은 약 3.0%였다. 김 등[17]연구에서 치아건강과 식습관과의 관계에서 선호하는 음식에 있어서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한 사람이 치아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과 딱딱한 음식을 고루 섭취한 사람이 치아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구강보건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시 식이 조절과 관련된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신건강지수에 대하여 구강건강영향지수는 $\beta=.582$, $t=10.275$ 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과 민[13]의 연구에서 OHIP-14는 THI에 강한 정의 영향을 보여 구강건강상태가 전신건강의 일부임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구강건강을 증진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구강보건실천은 구강건강영향지수를 매개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식생활 행태는 구강건강영향지수를 매개로 전신건강지수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간접효과의 크기는 .100이었고 t 값은 2.527이었다. 박 등[18]의 연구에서 식생활 습관이 양호한 군에서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19]의 연구에서는 식습관은 건강점수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고, 유 등[20]의 연구에서도 식습관 점수와 삶의 질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나타내어 보육교사의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위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일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구강보건지식의 전신건강지수에 대한 구강보건실천과 식생활 행태 및 구강건강영향지수를 매개한 간접효과는 크기는 .005였고 $t=.558$ 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신건강지수가 이들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은 약 33.9%로 나타났다. 김과 민[13]의 연구에서 구강보건실천이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구강보건실천이 높은 사람이 구강건강이 좋지만, 구강건강이 나쁜 경우에도 구강건강에 신경을 써서 구강보건실천이 많을 수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고, 김과 문[21]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육교사의 연령대가 20대에서 50대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한 요인

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더 많은 표본수를 조사하여 일반화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로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영향지수 및 전신건강지수와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교사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은 구강건강의 삶의 질과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영유아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G. D. Slade, "Derivation and validation of a short-form oral health impact profile, Community and Oral Epidemiology", 25(4), pp. 284-290, 1997, [Article\(CrossRefLink\)](#)
- [2] B. H. Oliveira, Nadanovsky P,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razilian version of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short form. Community Dentistry and Oral Epidemiology", 33(4), pp. 307-314, 2005, [Article\(CrossRefLink\)](#)
- [3] D. Locker, Y. Miller, "Evaluation of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indicators". J Public Health Dent, 54(3), pp. 167-176, 1994, [Article\(CrossRefLink\)](#)
- [4] P. F. Allen, A. S. McMillan, "The impact of tooth loss in a denture wearing population: an assessment using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 Community Dent Health", 16(3), pp. 176-180, 1999.
- [5] M. R. Lee, G. S. Han, S. U. Han, J. S. Choi, "Impact of Subjectively Reported Oral Health Status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Adults: Applying the PRECEDE Model", J of Korean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8(1), pp. 23-35, 2011.
- [6] J. B. Kim, E. U. Choi, H. S. Moon, et al., Public Oral Health. 4th ed. Seoul, Koomoosa, pp. 1-9, 2010.
- [7] J. S. Kim, The effect of an infection prevention program in child day-care cent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 [8] J. K. Kang, S. M. Lee, "'Relationship between oral-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attempts to improve oral health", J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4(3), pp. 354-361, 2010.
- [9] S. J. Kim, S. O. Yang, J. E. Lee, S. H. Kim, K. A.

Ka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Child Health Care protocol for child day care center teacher",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7(2), pp. 74-83, 2011, [Article\(CrossRefLink\)](#)

[10] K. H. Jung,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preschool teachers on oral health education in Daejeon, Korea, Graduate School of Health Environment, Wonkw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11] Y. A. Ko, H. C. Baek, "Status and Needs Assessment of Health Education in Child Daycare Centers", J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2(2), pp. 237-245, 2008.

[12] B. H. Kang, S. N. Park, K. Y. Sohng, J. S. Moon, "Effect of a Tooth-brushing Education Program on Oral Health of Preschool Children", J Korean Academy of Nursing, 38(6), pp. 914-922, 2008, [Article\(CrossRefLink\)](#)

[13] J. H. Kim, K. J. Min, "Research about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life, Oral Health and Total Health of adults", J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5(2), pp. 31-46, 2008.

[14] K. H. Jung, H. S. Lee, J. G. Jeon, K. W. Chang,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preschool teachers on oral health educa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Korea", J Korean Acad Dent Health, 33(4), pp. 597-607, 2009.

[15] J. U. Back, E. M. Noh, "A Study of Hospitalized Patients' Recognition and Practice of Dental Health",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5(1), pp. 45-54, 2009.

[16] J. H. Won, I. S. Park,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visiting health care personnel", J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7), pp. 2459-2467, 2010, [Article\(CrossRefLink\)](#)

[17] J. S. Kim, J. D. Lee, H. K. Jung.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Dental Health Condition and Eating Habit". J Korean Academy Dental Technology, 29(1), pp. 103-119, 2009, [Article\(CrossRefLink\)](#)

[18] Y. A. Park, S. H. Jeong, S. H. Yoon, "Associations between general health and diet habits and oral health among the elderly in Pohang city", J Korean Acad Dent Health, 30(2), pp. 183-192, 2006.

[19] B. R. Kim, "A Study on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s, health-related life style and health condition of college students in Chuncheon", J Korean Soc Food Sci nutr, 35(9), pp. 1215-1223, 2006.

[20] J. S. You, J. Y. Park, K. J. Chang, "Correlation among Dietary Habits Score, Life Stress Scor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HRQL) Scor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Functional Constipation", J

Korean Nutrient, 43(6), pp. 620-627, 2010, [Article\(CrossRefLink\)](#)

[21] N. H. Kim, O. R. Moon,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erceived oral health of the elderly", J Korean Dental Health, 12(1), pp. 33-42, 2003.

성 미 경(Mi-gyung Seong)

[정회원]



- 1994년 8월 : 경남대학교 생물학과 (이학석사)
- 2006년 2월 : 경남대학교 생명공학과 (이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예방 및 임상 치위생학, 구강보건

손 은 주(Eun-Joo Son)

[정회원]



- 2006년 8월 : 신라대학교 유아교육 전공(교육학 석사)
- 2011년 2월 : 동아대학교 교육방법 전공(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직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창의인성, 자기주도적 학습력, 리더십, 초인지 및 사고발달, 교사효능감

장 경 애(Kyeong- Ae Jang)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구강건강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